





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. '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'라는 질문은 <냄비받침>의 2010년부터 2014년 5월까지 5년간 500여명의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왔다. 이 질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"나는 누구인가,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,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"라는 질문을 던졌다.

"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,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."

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. "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"라는 질문은 2010년부터 2014년 5월까지 5년간 500여명의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왔다. 이 질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"나는 누구인가,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,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"라는 질문을 던졌다.







\* 00 00 000 0000 000 00 0000 000000.

- 0000 0000... <0000>, 00 000000



00000 2017.6.22. (000\_00\_0000 )

- [TV00] '0000', 00 0000000 000 00 00



000000. 2017. 6.28. (000\_00\_0000 )



- '00000 000 00 0000 0000 <0000>' 000 (000\_00\_0000 )

- [00 00] 000 00, 000 00.



0000 2017.6.25. (000\_00\_0000 )

- 200 00 '00 00'... 000 "0000 00"



0000 2017.6.21. (000\_00\_0000 )

- '0000 00'... 000 0000 000 000



0000 2017.6.10. (000\_00\_0000 )